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프랑스어의 연상 대용 현상에 관한 연구

Étude sur le phénomène d'anaphore associative  
en français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김 서 영



# 프랑스어의 연상 대용 현상에 관한 연구

Étude sur le phénomène d'anaphore associative  
en français

지도교수 심 봉 섭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김 서 영

김서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원장 \_\_\_\_\_ 장 승 일



부위원장 \_\_\_\_\_ 한 문 희



위원 \_\_\_\_\_ 심 봉 섭





## 국문초록

### 프랑스어의 연상 대용 현상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프랑스어의 연상 대용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에 제시되어 온 연상 대용의 분류 체계를 분석하며, 나아가 기존의 이론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현대 언어학에서 통용되는 대용의 개념을 정리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대용과 유사하다고 간주해 온 내조음과 외조음, 직시와 같은 언어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과 구별되는 대용의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이어서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이분법적으로 분류 가능한 대용의 여러 유형들을 제시하며 연상 대용의 상위 개념인 대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연상 대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Guillaume(1919)의 연상 관계의 개념을 기초로 발전한 프랑스어의 연상 대용에 관한 연구는, 약 100 년에 걸쳐 어휘 전형적 이론과 인지 담화적 접근이라는 현상에 관한 두 가지 대표적 시각을 탄생시키며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이 중 어휘 전형적 이론의 논의를 따르며, 어휘들 사이에 형성된 전형적 관계를 기반으로 현상을 분의적 연상 대용과 비분의적 연상 대용들로 분류한 Kleiber 의 분류법을 분석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연상 대용은 분의적, 장소적, 행위자적, 기능적, 집합적 연상 대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분류는 모든 연상 대용의 예시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각각의 항목이 지니는 전형성의 차이와 관련하여 분류 기준상의 문제를 지녔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그의 분류를 기반으로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여, 전체-속성, 분의적, 공간적, 단계적, 기능적, 행위자적, 등가적 연상 대응이라는 7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의미상의 새로운 분류를 시도한다.

연상 대응은 어휘론과 의미론, 화용론 및 통사론 등 언어학의 세부 분야들에서 폭넓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는 또한 오늘날 언어심리학, 정보학, 논리학과 인공지능 등 언어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접근 가능한 언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도한 의미적 접근 외에도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를 통해 현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추후 연구들을 통해 지속되길 바란다.

## 주요어

대응

연상 대응

어휘 전형적 이론

분의 관계

클라이버

연상 대응의 분류

# 목 차

<b>1. 서론</b> .....	1
<b>2. 대용(anaphore)</b> .....	3
2.1. 대용이란 무엇인가 .....	3
2.1.1. 대용의 정의 .....	3
2.1.2. 선행사와 대용사 .....	7
2.2. 대용과 직시 .....	11
2.3. 대용의 분류 .....	13
2.3.1. 대명사 대용과 명사 대용 .....	14
2.3.2. 충실 대용과 불충실 대용 .....	14
2.3.3. 결속 대용과 자유 대용 .....	15
2.3.4. 공지시 대용과 연상 대용 .....	16
<b>3. 연상 대용(anaphore associative)</b> .....	<b>19</b>
3.1. 연상 대용이란 무엇인가 .....	19
3.1.1. 연상 대용에 관한 기존 연구 .....	19
3.1.2. 연상 대용의 개념 .....	23
3.1.3. 연상 대용의 선행사와 대용사 .....	27
3.2. 연상 대용과 전형성 .....	28
3.2.1. 연상 대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28
3.2.2. 전형성과 연상 대용의 해석 .....	32
3.2.3. 전형성과 분의 관계 .....	35



3.3. 연상 대응의 분류 .....	36
3.3.1. 분의 관계에 의거한 연상 대응의 분류와 한계 .....	36
3.3.2. Kleiber의 다섯 가지 분류 .....	39
3.4. 연상 대응의 새로운 분류 .....	51
3.4.1. 기존의 분류가 지닌 한계 .....	51
3.4.2. 새로운 분류 시도 .....	53
<b>4. 결론 .....</b>	<b>60</b>
<b>Bibliographie .....</b>	<b>63</b>
<b>Résumé .....</b>	<b>67</b>

## 표 목 차

<표 1> 분의 관계의 하위 범주 .....	37
<표 2> 연상 대응의 재분류 .....	57

## 그 림 목 차

<그림 1> 내조음과 외조음의 구분 및 하위 분류 .....	13
<그림 2> 공지시 대응 .....	17
<그림 3> 연상 대응 .....	17

# I. 서론

대용의 한 종류인 연상 대용은 연상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용 현상이다. Saussure는 연사적 관계(rapports syntagmatiques)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연상 관계(rapports associatifs)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공통점을 갖는 어휘들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서로 연합하여 다양한 관계의 어휘군을 형성한다.<sup>1</sup> 우리가 본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연상 대용은 두 단어 간에 연상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Saussure의 연상 관계의 일환이다. 그러나 연상 대용이 사전학을 포함하여 어휘론과 의미론, 화용론, 심리언어학 등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포착되는 언어 현상이며, 연상 대용의 성립을 위해서는 통사적, 담화적 제약이 개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연구에서 우리는 Saussure의 개념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필요로 한다. Saussure 이후 Guillaume이 제시한 연상 관계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그는 연상 관계를 통해 하나의 이미지가 관련된 다른 이미지들을 환기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상 대용이 두 어휘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에 기반하여 성립한다는 사실은 거꾸로 연상 대용의 연구가 어휘 분석이나 문장 혹은 담화의 구성과 해석,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 작용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상에 대해 다양한 언어학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은 어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 연관성이라는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연상 대용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

<sup>1</sup> « (...) d'autre part, en dehors du discours, les mots offrant quelque chose de commun s'associent dans la mémoire, et il se forme ainsi des groupes au sein desquels règnent des rapports très divers.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서론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2장에서는 대용 현상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선행사와 대용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내조음과 외조음, 직시 등 일반적으로 대용과 유사하게 분류되어 온 현상들을 소개하며, 이들과 구별되는 대용의 성격을 정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준에 의거한 대용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3 장에서는 연상 대용에 관한 개념과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먼저 우리는 연상 대용을 전형성과 담화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각각 살펴보고, 전형성에 기반한 시각 중 대표적으로 Kleiber의 프랑스어의 연상 대용 현상을 분류한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Kleiber 이론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새로운 분류의 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프랑스어의 연상 대용 현상을 정의하고, 이를 바라보는 주요 시각과 분류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분류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의미적 분류를 제시할 것이다.

## 2. 대용

### 2.1. 대용이란 무엇인가?

#### 2.1.1. 대용의 정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대용은 하나의 어휘나 표현이 글의 대칭성이나 강조를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수사적 과정이다(Zribi-Hertz, 1996:20).<sup>2</sup> *Dictionnaire de poétique et de rhétorique*에서도, 수사학에서 대용이란 모든 주장, 의지, 끈기, 영원한 사랑, 무자비한 증오, 격분, 감동이나 서사 혹은 슬픔 등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한 구절이나 문장의 서두에 나타나는 어휘의 반복적 표현 형태라고 정의한다(Morier, 1975:109-110).<sup>3</sup> 이 정의에 의하면 다음 Charles Péguy의 시<sup>4</sup>에서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표현들 간의 관계는 대용 관계이다.

- (1) **Heureux ceux qui sont morts** pour la terre charnelle,  
Mais pourvu que ce fût dans une juste guerre.

---

<sup>2</sup> « L'anaphore est traditionnellement définie comme un processus rhétorique consistant à répéter un mot ou une suite de mots dans un but d'emphase ou de symétrie. »

<sup>3</sup> Figure qui consiste à répéter un mot au début de plusieurs vers, phrases ou membres de phrase. Elle est justifiée par toute espèce d'insistance, celle de la volonté, de la persévérance, de l'amour impérissable, ou de la haine implacable, (...) celle de l'indignation, (...) celle du lyrisme, de l'éloquence, ou plus simplement du chagrin. Mais partout l'anaphore doit être le signe d'un sentiment dont la répétition seule réussit à épuiser l'expression. - *Dictionnaire de poétique et de rhétorique*(Henri Morier 1989:109-110)

<sup>4</sup> C.Péguy, (1913), 『Eve』

**Heureux ceux qui sont morts** pour quatre coins de terre.

**Heureux ceux qui sont morts** d'une mort solennelle.

그러나 현대 언어학에서는 문장이나 담화 상에 실현된 두 표현 간의 지시적 의존 관계에 의거하여 대용을 정의한다. 대용은 동일한 어휘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형태로 대체(substitution)하는 과정이다.

- (2) a. **Pierre** est né le 8 : **cet ange** me fait sourire.  
b. **Pierre** est né le 8 : **le bébé** me fait sourire.  
c. **Pierre** est né le 8 : **il** me fait sourire.  
d. **Pierre est né le 8** : tout le monde croit que **celui-ci** est un vrai bonheur.  
e. **Pierre** est né le 8 : tout le monde pense qu'**il** ressemble à son grand-père.  
f. **Pierre s'**endort tranquillement.

위의 (2a-f)에서 명사적 표현 « cet ange », « le bébé »나, 대명사 « il », « celui-ci », « s' »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들이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앞선 문맥을 참조해야 한다. 이 예문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표현들이 지시하는 대상을 거꾸로 추론해 나가는 인지적 단계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2a-c, 2e-f)에서는 « Pierre »가, (2d)에서는 « Pierre est né le 8 »라는 사실이 그 대상임을 알게 된다. 이 경우, 현대 언어학에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된 표현과 밑줄 친 « Pierre »와 « Pierre est né le 8 » 간의 관계를 대용 관계라 명명한다.

Reichler-Béguelin(1989:307-308)<sup>5</sup>과 Zribi-Hertz(1996:20)<sup>6</sup>에 의하면, 대용은 제시된 요소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대 언어학에서 대용에 관한 연구는 이를 과거 수사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음성, 형태적 측면에서의 반복(répétition)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통한 재연(reprise) 현상으로 보고,<sup>7</sup> 되풀이하는 표현과 되풀이되는 표현 간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제약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pothéloz(1995:18-22)는, 대용이 단순히 두 요소 간의 연결이나 종속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표현을 동일한 어휘로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표현으로 대체하여 앞서 언급된 요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환기 형태(forme de rappel)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sup>8</sup>

Maillard(1972:93)는 "발화 연쇄 내에서 다른 한 부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요소를 지시어라고 부르고, 이 지시어에 의해 연관되는 부분을 피지시어라 부른다. 지시 관계는 두 요소 사이에 구축되는 « 잠재적(virtuel) » 의미 관계이다."<sup>9</sup>

---

<sup>5</sup> « En outre et sauf accident, il est communément admis que l'anaphorique, en tant que forme de substitution, ne fait *grosso modo* que "reprendre" du déjà dit, selon un processus linéaire allant d'un "plus" d'information vers un "moins" d'information. »

<sup>6</sup> « On voit que les acceptions traditionnelle et moderne du terme anaphore exploitent différemment l'idée de répétition : l'anaphore rhétorique consiste en la répétition d'une même expression : l'anaphore linguistique consiste en l'emploi d'une expression de rechange permettant, justement, de ne pas en répéter une autre. »

<sup>7</sup> 재연이란 앞선 문맥이나 또는 담화 상황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 일정 요소가 보다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표현 양식으로 대체되어 표현되는 되풀이 현상이라 규정할 수 있다.(홍종화, 1994:157-158)

<sup>8</sup> « Les expressions d'anaphore ou d'anaphorique désigneront toujours, sauf indication contraire, une forme de rappel. »

<sup>9</sup> « Nous conviendrons d'appeler *référent* le segment qui doit être mis en rapport avec

라고 언급하며 대용을 지시어(référent)와 피지시어(référé)를 연결하는 지시 관계 (lien référentiel)에 관한 현상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Maillard는, 지시어와 피지시어가 상호 연관성 속에서 발화의 의도된 의미를 발현시키고,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요소는 « 잠재적 » 의미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제시어가 갖는 의미의 잠재성에 관한 논의는 과거 Tesnière(1969:86)<sup>10</sup>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대용적 표현들은 대용적 연결 관계 밖에 존재할 때, 가령 사전 상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할 때에는 공의어(mots vides)에 해당하지만, 문장 내에서는 다른 어휘와 대용적 연결 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실어(mots pleins)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Milner(1982:18)<sup>11</sup>와 Corblin(1985:177-178)<sup>12</sup>, Reichler-Béguelin(1988:17)<sup>13</sup>의 논의는 두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

une autre partie de la chaîne et *référé* cette partie qui est impliquée par le référent. Le lien référentiel est le rapport sémantique 'virtuel' qui s'établit entre les deux. »

<sup>10</sup> « Les anaphoriques sont ainsi des mots vides dans le dictionnaire, où ils figurent en dehors de toute connexion anaphorique. Mais ils deviennent pleins dès que, dans une phrase, ils entrent en connexion anaphorique avec un autre mot, parce que celui-ci leur communique son sens. »

<sup>11</sup> « Il y a relation d'anaphore entre deux unités A et B quand l'interprétation de B dépend crucialement de l'existence de A, au point qu'on peut dire que l'unité B n'est interprétable que dans la mesure où elle reprend — entièrement ou partiellement — A. »

<sup>12</sup> « L'anaphore est un rapport entre des expressions linguistiques et il s'agit d'un rapport dissymétrique entre un terme, dit en français anaphorique, et un antécédent ou 'source'. »

<sup>13</sup> « Ainsi définie, l'anaphore représente un phénomène de dépendance interprétative entre deux unités, la seconde ne pouvant recevoir un sens référentiel sans avoir été mise en connexion avec la première, laquelle est appelée, selon les terminologies, antécédent...»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대용 관계란 해석에 관한 문제로, 두 언어 표현 A, B 중, B는 A와 관계를 맺어야만 그 지시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때, B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A를 되풀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해석에 관한 한 두 표현 사이의 관계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적이므로 비대칭적이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보듯이, 현대 언어학에서 대용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용의 어떤 부분에 보다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유사한 표현이 되풀이되는 재연에 관한 개념으로 대용을 정의하는 시각, 어휘들 사이에 형성되는 잠재적 의미 관계를 핵심으로 보는 시각, 두 요소들 간의 해석 의존성과 비대칭성에 관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용을 어떤 언어 표현이 그 자체적으로는 의미나 지시 대상을 갖지 못하고, 앞서 언급된 표현을 통해서 그 해석을 얻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때, 발화 상의 두 표현 중 한 표현은 해석을 위해 먼저 제시된 표현에 의미적으로 의존하고, 따라서 대용은 두 요소 간의 불균형한 해석적 의존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언어 현상을 지칭하게 된다.

### 2.1.2. 선행사와 대용사

앞서 제시되었던 예들 중 (2a)와 (2b)를 다시 살펴 보자.

(2a) **Pierre** est né le 8 : **cet ange** me fait sourire.

(2b) **Pierre** est né le 8 : **le bébé** me fait sourire.

(2a)의 « cet ange »에서 « ange »와 (2b)의 « le bébé »에서 « bébé »는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시할 수 있는 지시적 표현(expression référentielle)이다. 그



런데 이러한 지시적 표현에 지시 한정사 « cet »와 정관사 « le »가 각각 부가되어 형성된 두 명사구 (2a)와 (2b)는 한정사들로 인해 지시적으로 의존적 성격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 cet ange »와 « le bébé »는 아무 « ange »나 « bébé »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미 언급된 « ange »나 « bébé »를 나타내는 것이며, 위 예문에서는 문맥을 통해 제시된 « Pierre »를 통해 지시적 내용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명사적 대용(anaphore nominale)<sup>14</sup>이라 불리는 (2a), (2b)의 경우와는 달리 (2c)-(2f)에서 대용을 위해 사용된 요소는 대명사이다. 명사적 대용이건 대명사를 통한 대용이건 대용에 사용된 이 두 유형의 요소는 흔히 대용적 표현, 혹은 대용사(anaphorique)라고 불린다. 반면에 대용 관계에서 대용사의 지시 대상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2a-c)와 (2e-f)의 « Pierre », (2d)의 « Pierre est né le 8 »는 전통적으로 선행사(antécédent)라 불린다. 선행사로는 « Pierre »와 같은 고유 명사 이외에도 (2d)에서처럼 문장을 비롯해, 아래 예문 (3a-d)에서 차례대로 보듯이 명사구(SN), 실사(substantif), 동사적 술어(prédictat verbal), 형용사적 술어(prédictat adjectival)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3) a. **Cet homme** croit qu'il est immortel.
- b. Pierre a attrapé une **grenouille** et Jean **en** a pris deux.
- c. Pierre a **sauté dans les flammes** mais Jean ne l'a pas fait.
- d. Pierre est **malade** mais Jean ne l'est pas encore.

한편 Maingueneau(1994:138)는 선행사와 대용사의 관계에 있어, (4)의 예문들에서와 같이 대용사가 선행사의 어떤 면(dimension)을 채택하여 대용을 하는가

---

<sup>14</sup> « (...) l'anaphorisé et l'anaphorisant sont tous deux des N" : il y a homogénéité catégorielle (...) » (Milner, 1982:32)

에 주목하여 대용이 이루어지는 양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sup>15</sup>

- (4) a. Mon chien mange de l'herbe. **Il** mange aussi de la terre.  
b. C'est le stylo de Paul. **Le mien** est là.  
c. Lune est un beau mot : **il** a 4 lettres.

(4a)에서 대용사 « il »은 선행사와 같은 지시 대상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4b)에서 대용사 « le mien »은 선행사와 동일한 기의(signifié)만 가질 뿐,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 다시 말해, 대용사가 « stylo de Paul »을 그대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예에서 « le mien »은 « stylo »라는 기호가 지닌 기의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미적으로 « mon stylo »를 나타낸다. (4c)에서는 대용사가 선행사의 기표(signifiant) 자체를 지시한다. 이 경우, 지시 대상과 선행사, 대용사의 관계는 메타언어적이다. 대용사 « il »은 본래의 지시 대상인 « lune »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 lune »라는 기호에서 의미를 배제한 외형에 해당하는 « mot »라는 형태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예들에서는 선행사의 '선행'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선행사가 대용사보다 먼저 나왔다. 그러나 대명사를 통한 대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용사가 선행사를 앞서는 경우를 흔히 관찰할 수 있다.

- (5) a. Quand **elle** n'est pas dans sa loge, la concierge est dans l'escalier.  
b. **Ils** ont eu froids les deux jeunes hommes anglais qui se sont perdus hier soir.

---

<sup>15</sup> Maingueneau(1994:138): « L'endophore peut reprendre un terme sous trois dimensions distinctes: - Comme ayant le même référent que lui  
- Comme ayant le même signifié  
- Comme ayant le même signifiant »

Tesnière(1976:87)는 (5)의 예문들과 같이 기능적으로는 선행사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대용사에 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 선행사 » 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Tesnière는 대용 관계 하에 있는 두 요소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여 의미 근원(source sémantiqu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달리 Maillard(1972), Reichler-Béguelin(1988), Maingueneau(1994) 등의 학자들은 (5)와 같은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역행 대용(cataphor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대용의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한다. Reichler-Béguelin(1988:37)에 의하면, 대용사의 해석이 뒤따르는 문맥에 의존하는 역행 대용은 예문 (5b)에서와 같이 특히 문장의 주어가 긴 경우,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

대용 현상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는 시각이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선행사와 대용사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Tesnière(1976:87)의 의미 근원 외에도, Maillard(1972:93)는 피지시어(référe)와 지시어(référent)로, Reichler-Béguelin(1988:17)은 해석소(interprétant)와 대용사(anaphorique), Milner(1982:29)는 피대용어(anaphorisé)와 대용어(anaphorisant)로 선행사와 대용사를 지칭하고 있다.

이 밖에도 Reichler-Béguelin(1989:307)은 선행사 대신에 지시물(référent), 근원(source), 대용사 통제자(contrôleur de l'anaphorique)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용사는 선행사 시동장치(déclencheur d'antécédent)와 같은 용어로 지칭되기도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가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행사와 대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2. 대용과 직시

다음 두 예를 살펴보자.

(6) **Pierre** est venu. **Il** partira demain.

(7) a. Attention ! **Il** est méchant.(avec geste d'ostension)

b. **Ce** train a toujours du retard.(prononcé sur le quai de la gare)

(Kleiber, 1991:8)

(6)에서 « Pierre »와 « il »은 각각 선행사와 대용사이므로 대용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7a)의 대명사 « il »과 (7b)의 지시 한정사는 발화 상황 속에 있는 대상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시(déixis)에 해당한다.

직시는 직시소(déictique)라는 요소를 활용하며 발화의 시간이나 장소, 발화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 등을 지시하고 발화 상황 속에서 그 의미가 해석된다. 직시소는 공간적 지표를 나타내는 « 여기(ici) », 시간적 지시와 연관되는 « 지금(maintenant) », 현장에 존재하는 1인칭이나 2인칭과 관련된 « 나(je) »나 « 너(tu) » 등으로 발화가 지시하고 있는 상황에 의존하여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는 언어적 표현이다.

대용사의 경우는 지시 대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담화 내에서 적절한 선행사를 찾아야 하는 반면, 직시소의 지시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관련된 즉각적인 언어 외적 상황 속에 존재하는 적절한 요소를 찾아야 한다.(Kleiber, 1991:4).<sup>16</sup>

---

<sup>16</sup> « (...) pour trouver le référent d'un anaphorique, il faut chercher le "bon" antécédent, ou la bonne source dans le texte ; pour trouver celui d'une expression déictique, il faut voir quelle est la "bonne" entité de la situation extra-linguistique immédiate qui y correspon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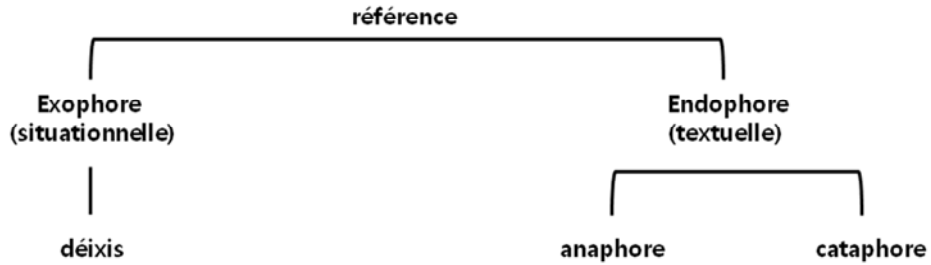
대용과 직시를 구분하는 근거로 전통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시 대상이 속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활용한다. Fraser & Joly(1980)에 의하면, 하나의 대상은 언어학적으로 담화 안이나 담화 밖이라는 두 개의 « 존재 공간(lieu d'existence) »을 가질 수 있다.<sup>17</sup> 이들보다 먼저 Halliday & Hasan(1976)<sup>18</sup>은 (6)과 (7)을 각각 내조응(endophore)과 외조응(exophor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분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내조응에서는 표현의 지시 대상이 발화 문맥 내에 존재하고, 외조응에서는 대용사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언어 문맥 밖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문맥과 연관된 내조응에서 대용사는 앞이나 뒤에 위치한 실질적인 어휘로서 식별 가능한 하나의 선행사를 찾으며, 그 예로 앞서 2.1.2.에서 살펴본 대용과 역행 대용이 있다. 이에 반해, 언어외적 현실 세계와 연관된 외조응은 대명사가 발화 상황 자체에 의해 해석되는 경우로 앞서 제시된 (7)의 예문들에서 살펴본 직시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1>에는 내조응과 외조응의 구분 및 하위 분류의 관계가 잘 드러난다.

---

<sup>17</sup> « (...) linguistiquement, un objet peut avoir deux lieux d'existence : hors du discours ou en discours. » (Kleiber, 1991:3에서 재인용)

<sup>18</sup> « M.A.K. Halliday et R. Hasan ont proposé de regrouper sous la notion d'endophore d'anaphore et la cataphore ... Dans l'endophore la référence d'un terme s'établit en recherchant un antécédent, avant ou après lui, dans le contexte linguistique. L'endophore s'oppose ainsi à l'exophore, où la référence du terme s'établit grâce au contexte situationnel. » (Maingueneau, 1994:138에서 재인용).



<그림 1>

내조응과 외조응, 그리고 대용은 각각 « endophore »와 « exophore », 그리고 « anaphore »라는 프랑스어 어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통된 어원을 지녔고, 모두 지시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점 때문에 종종 대용과 유사한 현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조응과 외조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용의 유형이 아니라, 대용과 직시를 구분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 틀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중 외조응은 오로지 직시와 연관된 개념으로 우리가 본 논문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대용 현상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 2.3. 대용의 분류

대용 현상에서 학자들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용의 유형을 다르게 분류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대용사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선행사구와 대용사구의 형태적 일치 여부에 따라, 대용 현상이 나타나는 언어 단위에 따라, 선행사와 대용사 간의 지시 대상의 동일성 정도를 기준으로 각각 이분법적으로 분류되는 대용의 유형들을 살펴볼 것이다. 대용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연상 대용이 다른 대용 현상들과는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진 대용 현상에 해당하는지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 2.3.1. 대명사 대용과 명사 대용

Milner(1982:18)는 대용사의 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용 현상을 (8a)와 같은 대명사 대용(anaphore pronominale)과 (8b)와 같은 명사 대용(anaphore nominale)으로 구분한다.

- (8) a. Pierre s'est dépêché parce qu'il ne voulait pas être en retard.  
b. Pierre a tué une mouche. Cette mouche l'a beaucoup énervé pendant la nuit.

대명사 대용에서는 대용과 관련한 두 요소가 서로 다른 문법 범주에 속한다. (8a)에서 선행사인 « Pierre »는 명사에 해당하고, 대용사인 « il »은 3인칭 대명사이다. 반면, 명사 대용은 (8b)에서 보듯이 대용사와 선행사가 동일한 문법 범주에 속한다. 이 때, « une »이 « cette »로 변하는 것처럼 한정사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선행사와 대용사는 모두 명사구이다.

### 2.3.2. 충실 대용과 불충실 대용

명사 대용과 관련하여, Apothéloz(1995:36)와 Maingueneau(1995:149-151)는, 대용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충실 대용(anaphore fidèle)과 불충실 대용(anaphore infidèle)을 구분한다. 충실 대용은 위의 예 (8b)에서와 같이 대용사와 선행사로 사용된 명사가 동일하나 한정사가 다른 경우이고, 불충실 대용은 아래 (9)에서와 같이 대용사로 사용된 명사와 선행사로 제시된 명사가 서로 다른 형태인 경우이다.

- (9) a. J'ai adopté un petit chien : **cet animal** est très affectueux.  
 b. Un bébé s'est mis debout. **La fille** était toute seule sans se tenir.

(9a)와 (9b)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불충실 대용의 경우, 대용 표현으로는 선행사의 동의어나 상위개념어가 사용된다. 그러므로 불충실 대용은 발화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휘적 지식이나 백과사전적 지식, 세계관 등에 의존하여 그 해석이 이루어진다(Maingueneau, 1995:151).<sup>19</sup>

### 2.3.3. 결속 대용과 자유 대용

Milner(1982:363)는 대용 현상이 나타나는 언어의 단위를 기준으로 결속 대용(anaphore liée)과 자유 대용(anaphore libre)을 구분한다. 결속 대용은 문장이라는 단위를 벗어나 주제가 변화 하지 않도록, 선행사와 대용사가 동일한 문장 내에 등장하는 (10a)-(10c)와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sup>20</sup>

- (10) a. Pierre se lave les mains.  
 b. Pierre croit qu'il aime Marie.  
 c. Quand Pierre regarde la télé, il ne répond jamais à ma question.

자유 대용이란 (11a)와 (11b)의 예문과 같이 선행사와 대용사가 서로 다른 문

---

<sup>19</sup> « Le coénonciateur peut établir par deux voies distinctes une relation d'anaphore infidèle entre deux termes : il peut s'appuyer sur un savoir lexical, par conséquent sur sa connaissance de la langue, ou sur un savoir encyclopédique, sur sa connaissance du monde. »

<sup>20</sup> Riegel(1994:234)은 이를 절 외적 대용(anaphore interpropositionnelle)과 절 내적 대용(anaphore intrapropositionnelle)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a. **Pierre** est venu. **Il** partira demain.

b. **Pierre** regarde la télé. **Il** lit. **Il** passe toute la nuit dans le canapé.

이때 대용사는 문장의 경계를 넘어, 담화 상에 자유롭게 등장한다. 이는 대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꼭 하나의 주제를 갖는 하나의 문장 안에 위치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 2.3.4. 공지시 대용과 연상 대용

선행사와 대용사 간의 지시대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대용을 공지시 대용(anaphore coréférentielle) 과 연상 대용(anaphore associat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지시 대용은 선행사와 대용사가 각각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동일할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두 요소 간의 공지시성은 문맥을 통해 파악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총실 대용과 유사해 보이지만, 총실 대용이 대용사와 선행사에 사용된 어휘가 동일함으로써 공지시가 성립함에 반해 공지시 대용의 범위는 총실 대용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다음의 예문 (12)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선행사 « Pierre »와 대용사 « cet homme »는 사용된 어휘는 다르지만 그 해석에 있어 지시하는 대상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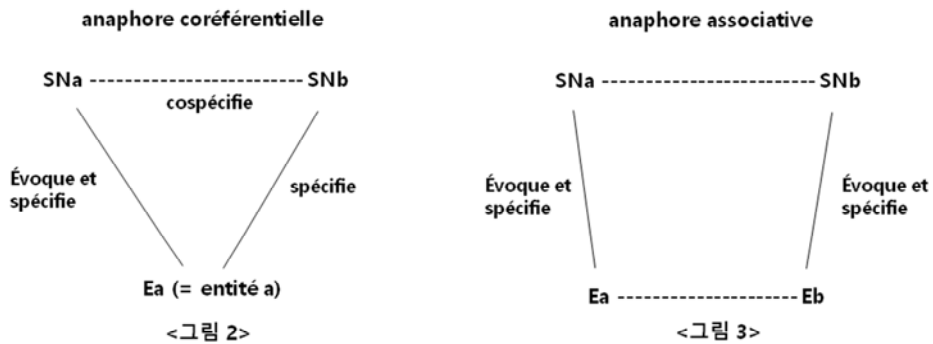
(12) **Pierre** a bu 3 bouteilles de vin hier soir. **Cet homme** boit trop.

연상 대용이란 이와는 달리 선행사와 대용사 간에 공지시가 없는 대용으로, 아래 (13)과 같은 경우이다.

(13)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fermée.

위 예에서 선행사와 대용사는 각각 다른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 이 경우 대용사의 지시 대상은 이전 문맥에서 선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선행사와 대용사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 연관성 때문에 대용이 성립되고 있다.

Webber(1988:62)는 <그림 2>와 <그림 3>에 의거하여 공지시 대용과 연상 대용의 개념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림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지시 대용에서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구 SNa는 지시 대상(Ea)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지시한다. 이어서 대용사에 해당하는 명사구SNb가 다시 한 번, 동일한 대상 Ea를 지시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두 개의 표현이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림 3>의 연상 대용에서는 새로운 지시 대상인 Eb가 등장한다. 대용사 SNb에 의해 연상되고 구체화되는 Eb는 선행사인 SNa에 의해 구체화되고 연상된 지시 대상인 Ea와 특정한 관계에 놓인다. 다시 말해, 선행사와 대용사 각각의 지시 대상에 해당하는 Ea와 Eb는 그 자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환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는다. 이 때, Ea와 Eb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전체에서 부분이라는 방향성을 갖는다.

연상 대용을 주제로 한 Kleiber(1994, 2001), Perdicoyanni-Paléologou(2001), Martínez & Pardo(2008) 등의 연구에 의하면, 대용사와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지시 대응과 연상 대응의 구분하는 작업은 연상 대응 현상의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2.3.을 통해 살펴 본 대응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연상 대응은 일반적으로 명사 대응, 불충실 대응, 그리고 자유 대응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구분되는 연상 대응만의 개념과 특수성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다.

## 3. 연상 대응

### 3.1. 연상 대응이란 무엇인가?

#### 3.1.1. 연상 대응에 관한 기존 연구

약 한 세기 전에 Guillaume(1919:162-163)은, (13)의 예에 의거하여, 연상 관계(rapport associatif)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sup>21</sup>

(14) Et, comme le voyageur passait alors devant **l'église**, les saints personnages qui étaient peints sur **les vitraux** parurent avoir de l'effroi. **Le prêtre**, agenouillé devant l'autel oublia sa prière.

위의 (14)에서 우리는 이전에 언급된 바 없는 « vitraux »와 « prêtre »가 정관사와 함께 쓰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어의 문법 지식에 따르면 명사구에 정관사가 사용되는 것은 관련된 명사가 앞서 언급되거나 공유된 적이 있는 명사의 특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4)에서 « 앞서 언급되거나 공유된 적 »이 없는 « vitraux »와 « prêtre »에 정관사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Guillaume은 « vitraux »와 « prêtre », 그리고 « église »간의 연상 관계에 주목하여 정관사의 출현 이유를 설명하였다. Guillaume은, 연상 관계란 담화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시할 때, 서로 연관이 있다고 감지하는 이미지들의

---

<sup>21</sup> Kleiber(2001:1)에서 재인용

뭉음이라고 정의한다.<sup>22</sup> 예를 들어, 우리가 « 시골 »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와 연관되어 연상이 가능한 다른 개념들, 이를테면 « 농사 », « 풀과 나무가 펼쳐진 풍경 », « 포장되지 않은 길 »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 (13)에서 « église »의 언급을 통해 연상 가능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 vitraux »와 « prêtre »의등장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14)와 같은 예들에서 관찰된 A라는 한 요소의 등장 이후, 이와 연관된 B와 C가 자연스럽게 후행하는 언어적 현상을 Guillaume이 연상 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상 대용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Kleiber(2001:1-2)에 의하면, 연상 대용이라는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이는 과거의 연구들이 연상 대용을 한정사가 위치하는 범주 문제로만 다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Blanche-Benveniste & Chervel(1966), Ducrot(1972), Azoulay(1978)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연구들<sup>23</sup>은 연상 대용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관사의 용법에 더 관심을 두어, 이미 언급되거나 공유된 명사의 특정성을 표현하는 정관사에 관한 이론을

---

<sup>22</sup> 하나의 이미지는 하위범주가 되거나 상위범주를 이루는, 그리고 유사하기도 한 이미지들을 환기한다. 인간의 깊은 의식 속에서 연상 관계를 통해 이처럼 포착되는 이미지들에 대한 기술의 일정한 효과 중 하나는 연속성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 Une image appelle régulièrement les images qu'elle sous-tend, celles dont elle est sous-tendue, et aussi celles qui l'avoisinent. (...) Un des effets réguliers de la description d'images ainsi arrêtées à une certaine profondeur dans l'esprit par un rapport associatif, est de communiquer un sentiment de continuité. » (Guillaume, 1919:162-163)

<sup>23</sup> Kleiber, Schnedecker & Ujma(1994:6) 재인용

정립하는 과정에서 연상 관계를 단순히 이용하는 차원으로만 논의를 전개해왔다. 두 번째로, 과거 연구들은 대용 해석에 관한 전략이나 해석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1970년대의 담화 연구는 연상 대용이라는 특수한 현상이 갖는 기능보다는, 대용이나 직시 등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시 현상의 유형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과거 연구들은 연상 대용과 관련된 해석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논의들은 위의 Guillaume의 예문에서 « les vitraux »와 « le prêtre »가 « 방금 언급된 그 교회의 유리창 »과 « 방금 언급된 그 교회의 사제 »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예문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언급된 바 있고, 교회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창이나 사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 église »를 떠올리는 순간 연상적 관계에 의해 « vitraux »나 « prêtre » 등이 함께 우리의 머리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sup>24</sup> 연상 대용에 관한 초기 연구는 이처럼 현상을 단순히 해석하는 데 그쳤을 뿐, 이를 체계적인 논리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Kleiber(2001:2-3)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연상 대용을 단순히 하나의 문장, 혹은 연이어 나타난 발화 연쇄의 의미 해석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담화 현상으로 인지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 연구들의 특징은 이미 알려진 요소를 통해 새로운 요소를 소개하는 연상 대용이 텍스트의 의미

---

<sup>24</sup> « L'explication des anaphores associatives de l'exemple de G.Guillaume que nous venons de citer semble en effet achevée lorsqu'on indique que, si les SN définis les vitraux, le prêtre et l'autel renvoient respectivement aux vitraux, au prêtre et à l'autel de l'église qui vient d'être mentionnée, c'est d'une part, parce que l'on vient effectivement de mentionner l'église en question et, d'autre part, parce qu'une église, et nous avons là la relation associative, a généralement des vitraux, un prêtre et un autel. »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오늘날까지 연상 대용은 텍스트의 정합성 연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연상 대용의 연구는 어휘론과 화용론, 의미론에서 공통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심리언어학과 정보학, 논리학 및 인공지능 전문가들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주제이다. 특히, 이는 고정적인 어휘의 의미들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태적 성격의 어휘 의미론과 담화 상에서 유동성을 지니는 동적인 성격의 담화 의미론<sup>25</sup>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Kleiber, 2001:2-3)<sup>26</sup>

이처럼 연상 대용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 주제이며, 특히 언어학의 어휘 의미론과 담화 의미론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현상의 경계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연상 대용은 어디에서 시작하며, 연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어휘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연상 대용과 관련된 주요한 논쟁 중 하나이다.

---

<sup>25</sup> 일반적으로 어휘 의미론은 고정되어 있는 어휘들의 의미에 집중한다는 면에서 정태적이며, 담화 의미론은 담화 상에서 문맥에 따라 의미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동적이다.

<sup>26</sup> « Il s'agit d'un sujet interdisciplinaire par excellence, un carrefour où se rencontrent non seulement les linguistes et les lexicologues, pragmaticiens et sémanticiens en tête, mais également et de façon cruciale, d'un côté, par sa dimension cognitive manifeste, les psycholinguistes, les informaticiens, les spécialistes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et les logiciens... Elle occupe dans le domaine linguistique une position charnière particulièrement intéressante, parce qu'elle représente une passerelle entre une sémantique lexicale, stable et statique, et une sémantique discursive, plus souple et dynamique... »

### 3.1.2. 연상 대용의 개념

Bouyer & Coulon(1994), Apothéloz(1995), Perdicoyanni-Paléologou(2001), Martínez & Pardo(2008)의 연상 대용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연상 대용의 다음 두 가지 특성에 주목한다. 먼저 연상 대용 현상은 선행사와 특정 명사구로 실현된 대용사 사이의 해석적 의존 관계이다. 두 번째로 앞서 2.3.4. 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연상 대용은 공지시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15) J'ai visité **une maison** ; **le toit** est rouge.

Blanche-Benveniste & Chervel(1966:31)에서는 Guillaume이 정의한 « 연상 관계 »에 « 대용 »의 개념을 덧붙여 보다 구체화된 정의를 제시한다. 이들에 의하면 « 연상에 의한 대용(anaphore par association)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생각의 대상이 첫 번째로 등장한 대상에 의해서 상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암시되는 용법 »이다.<sup>27</sup> 이 정의에 의하면 위의 예문 (15)에서 « toit » 앞에 대상의 특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 le »의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 toit »가 앞의 문장에 먼저 제시된 « maison »에 의해 그것의 존재가 암시되는 지시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용사구 « le toit »는 전혀 엉뚱하게 등장한 요소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통해 충분히 연상이 가능한 특정한 요소, 다시 말해, 앞서 언급된 « maison »의 일부로서의 « toit »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연상 대용의 지시 대상은 이전의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

<sup>27</sup>« Cl.Blanche-Benveniste et A.Chervel(1966,31) dénomment "anaphore par association" les "emplois où l'objet de pensée de la deuxième apparition n'est pas évoqué, mais seulement impliqué par celui de la première apparition." » (Choi-Jonin, 1994:251)



요소이고, 그 의미 해석은 담화를 통해 사전에 주어진 정보나 배경지식, 언어가 사용되는 공동체의 문화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Perdicoyanni-Paléologou, 2001:58)<sup>28</sup>

이와 관련해 Kleiber(2001:87)는 아래 예 (16)에서 보듯이 연상 대용이 특정 명사구를 사용하며, 앞선 문맥에서 언급된 요소를 매개로 새로운 지시 대상을 소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16)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Le volant se tourne difficilement.

Kleiber(2001:319)에 의하면 연상 대용은 특정 명사구가 대용사로 사용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적 해석이 불가능한 아래 (17)에서는 « voiture »와 « volant » 사이에 아무런 해석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연상 대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17) ?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Un volant se tourne difficilement.

그러나 모든 불특정 명사구(SN indéfini)가 연상 대용 현상에 적합하지 않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8)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Un pneu était dégonflé.

---

<sup>28</sup> « L'anaphore associative qui présente deux propriétés : a) elle désigne un objet, qui n'a pas été mentionné explicitement dans le contexte antérieur, mais qui peut l'être implicitement ; b) elle est interprétable grâce à des informations qui ont été préalablement introduites dans le discours et à la sollicitation de connaissances d'arrière-plan et de stéréotypes culturels d'une communauté donnée, à savoir les "topoi". »

(18)의 경우, « un pneu »는 불특정 명사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상 대응사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위 예를 접한 청자 혹은 독자는 « un pneu »가 세상 모든 바퀴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 문장에서 언급된 자동차의 바퀴들 중 하나라고 해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Bouyer & Coulon(1994:323-324)은 (18)과 같이 불특정 명사구가 연상 대응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18)이 아래 (19a)와 해석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9) a.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Les pneus** étaient dégonflés.

b.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Un des pneus** était dégonflé.

c.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Un pneu** était dégonflé.

(=17)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위의 (18)에서 « un pneu »는 (19a-b)를 통해 알 수 있듯이, « voiture »와 연상 관계를 갖는 « les pneus »가 « un des pneus »라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는 대상들의 총체(ensemble d'objets)에서 부분(partie)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어서 생략(ellipse)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Kleiber, Schnedecker & Ujma(1994:14)는 « 자동차의 바퀴 중 하나 », « 책의 한 페이지 » 등의 연상 대응에서 지시 대상이 불특정 명사구로 제시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새로운 지시 대상을 소개한다 »는 연상 대응의 기본 전제를 뒤집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sup>29</sup> 즉, (19a)에서처럼 새로운 지시대상이 선행사로부터 유추 가능한

---

<sup>29</sup> « On ne peut nier l'existence d'indéfinis anaphoriques associatifs du type de ceux de *une roue pour voiture, une page pour livre*, etc., mais on n'est pas obligé pour autant de remettre en cause le facteur du référent nouveau introduit sur le mode du connu. »

특정한 대상들의 총체에 해당될 때, 그 총체의 일부도 특정성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대용사로 불특정 명사구가 사용되어도 여전히 특정성의 제약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30</sup>

이는 대용사가 형태상으로는 불특정 명사구일지라도 의미 해석 상 특정적 해석이 가능하여 특정성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연상 대용의 대용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Kleiber(2001:318)는 연상 대용의 네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새로운 지시 대상을 도입함
- 특정성 제약을 따른 대용적 표현을 사용함
- 텍스트 안에 이전에 언급된 또 다른 실체를 매개로 함
- 선행사와 대용사의 관계는 단순히 담화적이거나 문맥적인 연상이 아니라 문제의 어휘소와 관련된 선형적이거나 관습적인 지식의 영역에 속함<sup>31</sup>

이하 연상 대용에 관한 논의는 Kleiber의 위 정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sup>30</sup> « Dans le cas des indéfinis associatifs, la condition de définitude est satisfaite au niveau de l'ensemble ou du domaine d'où est extrait le référent nouveau. Il faut que cet ensemble soit un ensemble restreint, un ensemble déjà défini. »

<sup>31</sup> i) l'anaphore associative consiste en l'introduction d'un référent nouveau,  
ii) au moyen d'une expression définie  
iii) par l'intermédiaire d'une autre entité mentionnée auparavant dans le texte,  
iv) la relation entre l'entité antécédente et l'entité nouvelle n'est pas une association uniquement discursive ou contextuelle, mais relève d'un savoir a priori ou conventionnel associé aux lexèmes en question.

### 3.1.3. 연상 대용의 선행사와 대용사

우리는 3.1.2.에서 연상 대용의 대용사는 특정적인 해석이 가능해야 하고 이런 이유로 대용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명사구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대용사가 갖는 의미적 특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Berrendonner(1994)는 논리학자인 Lesniewski의 이론<sup>32</sup>을 활용해 연상 대용의 전제조건으로 « 구성 성분성(ingrédience) »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sup>33</sup> 그에 의하면, 앞에서 제시된 (14)의 예에서 « le toit »가 « une maison »의 « 구성 성분(ingrédient) »에 해당하듯, 연상 대용에서는 선행사와 대용사 사이에 구성 성분성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15) J'ai visité **une maison** ; **le toit** est rouge.

이와 같은 맥락에서, Kleiber(2001:80)는 « 선행사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선행사가 지시하는 실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용적 표현이 지시하는 실체를 포함해야 하고, 대용적 표현이 지시하는 실체 이외의 다른 실체들도 포함해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선행사의 지시 범위가 어떻게든 대용사의 지시 범위 보다 커야함을 주장한다.<sup>34</sup> 연상 대용의 두 요소 사이에는 포함(englobement) 관계가

---

<sup>32</sup> i ) P est un ingrédient de Q si P est le même objet que Q ou une partie de Q ;

ii) Si P est une partie de Q alors Q n'est par une partie de P ;

iii) Si P est une partie de Q et Q une partie de R, alors P est une partie de R

- (Sur les fondements de la mathématique. Fragments – Lesniewski S. 1989)

<sup>33</sup> Kleiber (2001:51에서 재인용)

<sup>34</sup> « (...) il s'ensuit une précision supplémentaire sur la 'taille' de l'entité antécédent – celle-ci doit, d'une manière ou d'une autre, englober ou inclure l'entité de l'expression

형성되며, 대용사는 « 피포함 요소(englobé) »로, 선행사는 « 포함 요소(englobant) »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다음 3.2와 3.3에서는 선행사와 대용사 사이의 포함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연상 대용의 선행사와 대용사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살펴 볼 것이다.

## 3.2. 연상 대용과 전형성

### 3.2.1. 연상 대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Kleiber(2001:8)는 연상 대용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의미론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어휘 전형적(*lexico-stéréotypique*) 관점이고, 두 번째는 담화 속에서 연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인지 담화적(*cognitivo-discursive*) 관점이다. 연상 대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 두 경우 모두 정관사와 함께 쓰인 특정 명사구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 (1) 어휘 전형적 이론 (*la thèse lexico-stéréotypique*)

Kleiber(2001:92)에 의하면, 연상 대용은 사물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식이나 사물들 간의 선형적 관계들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 관계를 백과사전적 토포스(*topos encyclopédique*)<sup>35</sup>, 상투적 관계

---

anaphorique- et sur son contenu : il faut qu'elle contienne d'autres entités que l'entité de l'expression anaphorique. »

<sup>35</sup> 문학에서 몇 개의 모티프들이 자주 반복되어 이루어내는 한 고정형이나 '진부한 문구 (literally commonplace)'를 지칭하는 개념.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 용어 중의 하나인 이것

(relations stéréotypiques) 혹은 시나리오(scénarios)라고 부른다. 다음 (20a-g)는 연상 대응 관계를 나타낸 예문들이다.

- (20) a. J'ai acheté un stylo, mais j'ai déjà tordu la plume  
b. Il s'abrita sous un vieux tilleul. Le tronc était tout craquelé.  
c. Il ne veut plus garder sa valise. Le cuir est fané.  
d. Il s'approcha du four. Bientôt la chaleur devenait étouffante.  
e. Le CD est abîmé. Paul a perdu la pochette.  
f. Il a perdu une valise à l'aéroport. Les vêtements valent plus de 1000 euros.  
g. Paul est entré dans un restaurant. Les serveurs étaient gentils.

위 (20)의 예에서 제시된 « stylo-plume », « tilleul-tronc », « valise-cuir », « four-chaleur », « CD-pochette », « valise-vêtements », « restaurant - serveurs »의 관계는 모두 모국어 화자의 어휘부(lexique) 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필수 조건 관계(20a,b), 사물과 재료 관계(20c), 전체와 기능 관계(20d), 전형적 조합 관계(20e), 용기와 그 내용물 관계(20f), 그리고 시나리오 상의 연상 관계(20g) 등으로 그 속성을 요약할 수 있다. 이 관계들은 해당 담화를 기반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일반적인 수준인 어휘부에서 형성된 것이다. 어휘 전형적 이론에 의하면, 전

---

은 현대 비평에서 주로 모티프의 개념으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Oswald Ducrot와 Todorov에 의하면 모티프의 하위개념으로 정의되는 편이다. 즉 모티프가 문학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한다면, 토포스란 그 모티프들이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일 필요는 없다) 자꾸만 반복되어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의 토포스는 현대 민속학에서 말하는 모티프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 토포스 [Topos] (소설학 사전, 2001, 문예출판사)

형적이고 상투적으로 연관 관계를 갖는 어휘들은 하나의 어휘 범주를 이루게 되고 이 범주 내에서 선별되어 발화에서 연쇄적으로 사용될 때 이들은 연상 대응 관계를 이룬다.

## (2) 인지 담화적 접근 (l'approche cognitivo-discursive)

Charolles(1994:70)은 어휘 전형적 이론이 선형적으로 형성된 어휘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망을 벗어나는 다음 (21)과 같은 경우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1) a. Ce matin, le nouveau Premier ministre a fait un voyage officiel.

**Les manifestants** se sont mis en colère...

b. Sophie **dormait**, **l'avion** survolait l'Océan Indien.

c.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roman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21a)의 두번째 문장의 주어인 « les manifestants »은 특정 명사구이고, (21a)의 두 문장의 의미를 살펴 볼 때 이들은 새 총리의 공적 방문과 관련된 시위자들이라는 의미이므로 연상 대응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 les manifestants »은 선행사로 가능한 잠재적 대상인 두 명사 « Premier ministre »나 « voyage » 중 그 어떤 어휘와도 의미적으로 미리 형성된 전형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 les manifestants »이 연상 대응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출현한 특정한 상황, 다시 말해서 문제가 되는 표현과 함께 주어진 문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문 (21b)와 (21c) 역시 같은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dormir-l'avion »이나 « village-l'église romane »의 관계에는 선형적인 의미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전형적 이론에 입각하면 이 문장들은 수용성의 문제를 가진 문장으로

평가된다.

- (22) a. Hier, le président a nommé son fils au poste de Premier ministre.  
Ce matin, le nouveau Premier ministre a fait un voyage officiel.  
**Les manifestants** se sont mis en colère.
- b. Tout était tranquille. Sophie **dormait**, **l'avion** survolait l'Océan Indien.
- c. La région était couverte de petits édifices dont certains remontaient au X<sup>e</sup> siècle. Nous partîmes très tôt car le programme était chargé.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roman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그러나 Charolles(1994:79)은 앞서 살펴 본 (21a-c)의 예문들을 각각 (22a)에서 처럼 « 총리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상황 »이나 (22b)의 « 인도양을 지나는 비행기 안의 풍경 », 또는 (22c)의 « 10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 많은 지역에 관한 이야기 »등과 같이 더 넓은 문맥을 상정하여 담화의 차원에서 폭넓게 살펴본다면 더 이상 수용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처럼 전형성에 토대를 두지 않아도 연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들을 담화 정합성 원리(Principe de cohérence)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담화 정합성 원리란, 담화에서 뒤에 오는 모든 문장은 앞선 문장에서 주어진 대상과 관련 있는 무언가를 언급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담화가 연상 대응이라는 관계를 이루는 두 지시 대상을 연결하게 만드는 지시적 고리를 제공한다고 보는 인지 담화적 접근법에 의하면, 모국어 화자의 어휘부 속에 이미 형성된 사전 지식이나 고정 관념 없이도, 예문 (20a)의 « plume »에 대한 연상 대응적 해석이 가능해져 청자는 대응사가 앞의 문장에서 언급된 선행사 « stylo »와 관련된 것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연상 대용의 연구에서 어휘 전형적 이론과 인지 담화적 접근법 사이의 이론적 충돌은 여전히 많은 언어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논쟁 거리이다. 어휘 전형적 이론이 어휘 자체가 갖는 의미와 그것이 속한 의미망에 집중함으로써 연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반면, 인지 담화적 접근법은 어휘와 연관된 사전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의사소통 참가자의 경제적인 언어활동을 설명한다. 두 방법론이 지니는 이와 같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지 담화적 접근법을 채택할 경우, 연상 대용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져 오히려 그 규칙성이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보다 적합한 어휘 전형적 이론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3.2.2. 전형성과 연상 대용의 해석

Kleiber(2001:111)는, 다음의 예와 이에 대한 Wilson(1992)의 논의를 제시하며 인지 담화적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23) ? Jean est allé se promener dans Central Park. Le voleur lui a pris tout son argent.

인지 담화적 접근법을 따르면, 우리는 사전 문맥에 의존하여 위 (23)의 « le voleur »를 « Jean이 센트럴 파크에서 만난 그 도둑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Wilson(1992)에 의하면 이와 같은 해석의 수용성(acceptabilité)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도둑 »과 « 센트럴 파크 »가 전형적 연상 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 도둑 »이라는 대용사가 « Jean이 센트럴 파크에서 만

난 그 도둑 »으로 이해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 Jean은 센트럴 파크를 산책 중이었다 »나 « 센트럴 파크에서는 도둑을 만날 확률이 높다 »등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harolles(1994:80) 역시 이와 같은 인지 담화적 접근법의 한계를 인정한다. 인지 담화적 접근법은 어휘 전형적 이론과는 달리 담화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연상 대용의 분석 대상이 되는 문장의 앞뒤에 존재하는 내용들로부터 단서를 얻어 이를 해석한다. 그러나 Charolles도 이를 인정했듯이 담화가 모든 표현을 연상 대용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인지 담화적 접근법의 한계를 잘 드러내주는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24) ? Ils habitent un quartier central. J'apprécie le calme.

(24)의 « le calme »는 그 문맥 상으로 앞서 언급된 « quartier central의 고요함 »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장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이 요소들 사이에 연상 대용이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선행사로 추정할 수 있는 « un quartier central »과 잠재적 대용사인 « le calme »가 선행사와 대용사가 가져야 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되는 « 총체 »과 « 포함 요소 »라는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청자는 자연스럽게 « Quel calme ?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는 « Ils habitent un quartier central qui est calme »와 같은 부연 설명 없이는 연상 대용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담화 내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인지 담화적 접근법 대신에, Kleiber(2001:112)는 연상 대용이 전형성에 입각하여 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용사의 지시 대상이 선행사 지시 대상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나 일부로 인지되지 않을 때 화자는 의도한 연상 관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Kleiber는 대용사의 지시 대상이 갖는 의미가 우리의 공

통 지식 안에서 선행사가 지시하고 있는 « 전체 »에 대한 « 일부 »로 인식될 때, 문장의 수용성은 향상된다고 설명한다. 다음의 (25), (26)를 살펴보자.

(25) a. Paul coupa un arbre. Le tronc était dur

b. ?Paul coupa un arbre. Les troncs étaient durs.

(26) a. La maison de Paul a été cambriolée. Le voleur n'a pas été retrouvé.

b. La maison de Paul a été cambriolée. Les voleurs n'ont pas été retrouvés.

전형성의 개념은 선행사와 대용사 어휘가 내포하는 수량적 의미 요소와도 연관이 있다. (25a)와 (25b)는 단수와 복수라는 표지만 다를 뿐 동일한 어휘를 대용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두 문장의 수용성은 각각 다르다. 문장 자체의 문법성(grammaticalité)에는 문제가 없으나, « 일반적으로 하나의 나무는 하나의 줄기만을 가지고 있다 »는 우리의 사전 지식 때문에 (25b)에서 연상 대용 관계의 해석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이에 반해, (26a,b)는 단수와 복수 표지에 관계없이 두 문장 모두 문법성이나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 이 문장들의 발화 상황에서 청자는 자연스럽게 이 사건의 도둑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해석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연상 대용의 생성과 해석이 « 의미 규칙(règle sémantique) »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상 대용 현상을 규정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선행사의 지시 대상과 대용사의 지시 대상이 형성하는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한 전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다.

### 3.2.3. 전형성과 분의 관계

선행사와 대용사 관계의 전형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개념은 분의 관계(méronymie)이다. 수사학의 여러 개념들 중 유사성(similarité)에 기반을 둔 은유(métaphore)<sup>36</sup>와 인접성(contiguïté)에 기반을 둔 환유(méronymie)<sup>37</sup>나 제유(synecdoque)<sup>38</sup>는 모두 연상 대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중, 특히 연상 대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요 논점으로 다뤄 온 « 전체 »와 « 일부 »의 문제는 제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제유는 « 일부를 활용해 전체를 대표하는 관계 »이며, 이러한 관계적 특성이 어휘들 사이에 나타나게 될 때 이를 « 분의 관계(méronymie) »라고 한다.

(27) Il a regardé la maison. La porte était fermée.

---

<sup>36</sup> 은유(metaphor)는 meta(over) + phora(carrying) 즉, 의미의 이동과 전환을 의미한다. '- 같다', '-듯하다'와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말을 숨기고 압축된 직유의 형태를 취하기 때 문에 은유(隱喩)라고 한다. 은유의 형태는 A=B이지만, 은유의 의미는 A×B이다. 이미지를 받는 말과 이미지를 주는 말이 상호작용에 의하여 의미의 질적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문학비평용어사전 - 하, 2006, 국학자료원)

<sup>37</sup> 환유는 한 낱말 대신 그것과 가까운 다른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환유와 제유를 엄 밀하게 구별할 수 없으며, 그 둘을 다 환유로 대표시키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나, 전통 적으로 제유는 전체와 부분, 일반과 특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시하는 비유이며, 환유는 원인과 결과, 소유자와 소유물, 발명자와 발명물,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비유이다. (문학비평용어사전 - 하, 2006, 국학자료원)

<sup>38</sup> 수사법의 일종으로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또는 한 말로 그와 관련되는 모든 것 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 방법이다. 빵이 식량을, 감투가 벼슬을 나타내는 것이 그 대 표적 예이다. 은유와 직유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에 기대어 의미의 전이가 일 어난다면 환유와 제유 같은 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인접성에 기대어 의미의 전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문학비평용어사전 - 하, 2006, 국학자료원)

Cruse(1986:160) 에 의하면, 부분-전체 관계에서, X와 Y라는 두 요소가 존재하고 Y가 X(혹은 복수의 X)를 가지고 있거나 X가 Y에 포함되거나, un X, un Y과 같은 명사구들이 총칭적으로 해석될 때, X가 Y의 부분어(méronyme)이다.<sup>39</sup>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27)에서 « maison »과 « porte »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존재하므로 « porte »는 « maison »의 부분어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선행사는 전체를, 대용사는 부분을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사와 대용사의 특징과 관계를 규정하는 작업은 연상 대용 연구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앞서 3.2.1.의 (20a-g)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Charolles(1994:70) 은 필수 조건 관계, 전형적 부분 혹은 조합의 관계, 용기와 그 내용물의 관계, 사물과 재료의 관계, 기능적 관계, 시나리오 상의 연상 관계 등으로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Martínez & Pardo(2008)처럼 연상 대용 현상을 단순히 환유를 나타내는 언어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3.1.3.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Berrendonner (1994)와 Kleiber(2001) 등의 학자들은 선행사와 대용사가 각각 « 포함 요소(englobant) »와 « 피포함 요소(englobé) »임을 지적하였고, 이 견해를 따라 연상 대용 현상을 분의 관계의 틀 안에서 조명하려는 시도가 가장 일반적이다.

### 3.3. 연상 대용의 분류

#### 3.3.1. 분의 관계에 의거한 연상 대용의 분류와 한계

---

<sup>39</sup> « X est un méronyme de Y si et seulement si des phrases de la forme Un Y a des Xs / un X est une partie d'un Y sont normales quand les SN un X et un Y sont interprétés génériquement. » (Kleiber, 2001:269에서 재인용)

분의 관계는 개념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 기준에 의거하여 연상 대응 현상을 살펴볼 경우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현상들을 포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Kleiber(2001:263-266)는 지적한다.

실제로 Winston, Chaffin & Herrmann(1987:420-426)은 다음 (28a-f)에서 차례대로 보듯이 분의 관계를 « 구성요소-구성대상 », « 일원-집합 », « 일부-덩어리 », « 물질-물체 », « 특성-활동 », « 장소-지역 »이라는 여섯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 (28) a. A handle is part of a cup.
- b. A tree is part of a forest.
- c. A yard is part of mile.
- d. The bike is partly steel.
- e. Paying is part of shopping.
- f. An oasis is a part of a desert.

이 여섯 개의 하위 범주는 <표 1>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전체에 대해 부분이 갖는 기능성의 존재 여부, 부분들 간 혹은 부분과 전체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 그리고 전체로부터 부분의 물리적 분리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이다.

관계	예시	관계 요소들		
		전체에 대해 부분이 갖는 기능성	부분들 간, 혹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유사성	전체로부터의 부분의 물리적 분리가능성
구성요소-구성대상 (component-integral object)	컵손잡이-컵 냉장고-주방	+	-	+

일원-집합 (member-collection)	나무-숲 배심원 -배심원단	-	-	+
일부-덩어리 (portion-mass)	파이 한 조각 -파이 야드-마일	-	+	+
물질-물체 (stuff-object)	고철-자전거 알코올 -마티니	-	-	-
특성-활동 (feature-activity)	비용 지불 -쇼핑	+	-	-
장소-지역 (place-area)	파리-유럽 오아시스 -사막	-	+	-

<표 1> 분의 관계의 하위 범주

위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분의 관계를 세분화한 Winston, Chaffin & Herrmann의 논의는 단순히 직관에 의거한 분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분류의 객관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위 분류를 통해서 « 연상 대용이 포함하는 언어 현상의 범위와 각 소분류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Kleiber(2001:279-281)는, 이들이 제시한 « 구성요소-구성대상 »라는 관계가 « 컵손잡이-컵 »과 « 냉장고-주방 »의 관계를 동일한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 컵손잡이 »는 « 컵 »의 본질적 일부로 볼 수 있지만, « 주방 »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체이기 때문에 « 냉장고 »가 그것의 본질적 일부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 컵손잡이 »와 « 냉장고 »가 전체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분어로서의 지위는 다르다는 것이

다.

또한 (28a-f)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의 분류는 단순히 « part of »라는 의미 요소를 지닌 관계들을 연상 대응으로 보고 분류한 결과이다. 그러나 분의 관계와는 무관한 연상 대응의 경우들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이는 분의 관계만으로는 모든 연상 대응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Kleiber(2001)는 새로운 분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다.

### 3.3.2. Kleiber의 다섯 가지 분류

Kleiber(2001:263-267)는 3.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상 대응을 단순히 분의 관계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연상 대응을 분의적 연상 대응, 장소적 연상 대응, 행위자적 연상 대응, 기능적 연상 대응, 집합적 연상 대응으로 분류한다.

#### 1) 분의적 연상 대응 (les anaphores associatives méronymiques)

분의 관계의 기본 전제는 « X est une partie d'un Y » 이다. 이 때, 대응사인 X의 지시 대상은 선행사 Y의 지시 대상에 존재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29)에서 부분어에 해당하는 « volant »이나 « anse »는 각각 « voiture »와 « tasse »에 종속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29) a. Une voiture s'arrêta. Le volant était tordu.

b. Il a touché une tasse. Et il a cassé l'anse.

분의 관계에서 대응사는 의미 자질 면에서 « ~의 부분 »이라는 자질을 지녀야 한다. 반면에 총체를 나타내는 선행사는 « 전체 »라는 의미 자질을 반드시



내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sup>40</sup> 다시 말해, 사전적 의미에서 « voiture »는 « 전체 »라는 의미 요소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 volant »은 사전 상으로 « 자동차 따위의 핸들 »이라고 정의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 ~의 부분 »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할 개념은 부분어에 해당하는 대용사이다.

Cruse(1986)<sup>41</sup>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분의 관계에서 부분어가 갖는 전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필수 부분어(méronyme canonique)와 선택 부분어(méronyme facultatif)를 구별한다. 전자는 « 전체 »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 부분 »을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상황에 따라 더 넓은 맥락 내에서 연상적으로 « 부분 »의 의미를 갖게 되는 어휘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 손 »에 있어 « 손가락 »은 필수 부분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손가락은 손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손가락 몇 개가 없는 손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인간이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손의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 주방 »과 « 냉장고 »의 관계는 선택적 관계이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냉장고가 존재하지 않는 주방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

---

<sup>40</sup> « Le trait définitoire décisif des anaphores associatives méronymiques réside donc dans le statut sémantique du nom anaphorique: il doit être marqué sémantiquement comme étant une partie-de, "ce qui impose de le définir relativement à une totalité"(Tamba, 1994:69).. Qu'en est-il du nom antécédent ? (...) Il ne contient pas le trait sémantique définitoire de totalité comme le méronyme implique le trait "partie-de". » (Kleiber, 2001:268)

<sup>41</sup> Winston, Chaffin & Herrmann(1987:421)에서 재인용: Cruse(1986)는 선택적인(optional) 부분과 필수적(necessary)인 부분을 구별하는 데 있어 Lyons(1977)의 견해를 따른다. 다만 Cruse는 용어를 달리하여, "선택적인(facultative)", "필수적인(canonical)" 부분/전체를 사용한다. « Cruse(1986) follows Lyons(1977) in distinguishing between optional and necessary parts, though Cruse prefers the terms "facultative" and "canonical" parts/whole.»

기 때문이다(Winston, Chaffin & Herrmann, 1987:421).

한편, Kleiber는 선택 부분어에 대해 이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선택 부분어는 여전히 « X est une partie d'un Y »라는 전제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분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전체에 대하여 종속적인 부분으로 연상되지 않는 요소라는 점에서 분의 관계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 주방-냉장고 »로 대표되는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분의 관계가 아닌 장소적 연상 대응으로 분류한다.

## 2) 장소적 연상 대응 (les anaphores associatives locatives)

Kleiber(2001:300)에 의하면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킬 때 X와 Y 사이에는 장소적 관계가 존재한다.

- (30) a) X와 Y는 다음의 총칭적인 구조 안에 나타날 수 있다: Y 내에는, X가 존재한다.
- b) X와 Y는 다음의 총칭적인 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X는 Y의 일부이다.<sup>42</sup>

(30)의 조건들에 의하면, 장소적 연상 대응에서는 대응사의 지시 대상이 선행사의 지시 대상 안에 위치하지만 부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선행사의 지시 대상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복합적 대상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분들을 소유하고 있는 통합체(objet intégral)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

<sup>42</sup> Il y a relation locative entre X et Y si et seulement si :

- i) les éléments X et Y peuvent figurer dans la structure générique. Dans un Y, il y a un X ;
- ii) les éléments X et Y ne peuvent s'insérer dans la structure générique. Un X est une partie d'un Y.

언급한 바 있는 다음 (31)의 예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31) Paul est entré dans la cuisine. Il a ouvert le frigo.

대용사 « le frigo »는 선행사 « cuisine »의 일부가 아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방안에 냉장고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가 주방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서, 부분은 전체가 갖는 기능과는 별개로 작동한다. 즉, 냉장고의 기능은 « 음식을 보관하는 것 »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 주방 »이 갖는 기능인 « 요리를 하기 위한 장소 »로서의 기능과는 분리 가능한 독립적 기능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위의 (29b)의 예문에서 대용사로 제시된 « 컵손잡이 »는 그 전체에 해당하는 선행사 « 컵 »을 들기 위해 사용하므로 기능적으로 종속된다.

이처럼 장소적 연상 대용은 분의적 연상 대용과 달리 선행사 Y와 대용사 X가 서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되 대용사 X가 일반적으로 Y라는 공간에 늘 있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에서 비롯되는 대용 관계이다. Kleiber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X가 Y의 존재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 냉장고 »라는 어휘에는 « 주방 »이라는 의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9b)에서 대용사 « 컵손잡이 »가 그 근원에 해당하는 선행사 « 컵 »으로부터 분리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 냉장고 »는 « 주방 »과 무관하게 « le frigo dans une cave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에도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유형의 연상 대용에서 대용사의 지시대상이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개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장소적 연상 대용에서 « 장소적 »이란 다음 예에서 보듯이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2) Paul a organisé un pique-nique qui a été totalement loupé. La bière était trop chaude.

(32)에서, « pique-nique »와 « bière »는 물리적 공간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leiber(2001:296)는 (32)를 장소적 연상 대응의 경우로 분류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 bière »가 지닌 « 음료수 »라는 의미 요소가 « 식사 »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장소적 연상 대응에서 « 장소 »는 하나의 자율적인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추상적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3) 행위자적 연상 대응 (les anaphores associatives actancielles)

행위자적 연상 대응은 다른 연상 대응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이 유형에서 선행사는 명사구가 아니라 술어(prédictat)이며, 대응사는 그 술어의 여러 논항 중 하나(un de ses arguments)인 행위자에 해당한다.<sup>43</sup> Kleiber (2001:336)에 의하면 행위자적 연상 대응에서 선행사와 대응사는 술어-논항(prédictat-argument)의 관계를 이루며, 이 때, 선행사의 지시대상과 대응사의 지시대상은 존재론적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 두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연상 대응과는 달리 행위자적 연상 대응은 하나의 사건이나 행위, 절차와 이에 개입한 개체가 맺는 관계이며<sup>44</sup> 이때 선행사는 동사구(SV)나 술어 명사

---

<sup>43</sup> Bouyer & Coulon(1994:324)은 이와 같은 형태의 연상 대응을 절차적 대응(l'anaphore de processus)이라 명명한 바 있다.

<sup>44</sup> « Notre définition a mis l'accent sur le fait que les actancielles, à la différence des autres anaphores associatives, reposaient sur une relation prédicat-argument. La structure référentielle n'est donc pas la même : le référent antécédent et le référent anaphorique sont de catégorie ontologique différente. Il ne s'agit pas de la relation entre deux individus, mais de celle entre un événement, action ou processus et l'individu impliqué par cet événement ou action. »

구<sup>45</sup>의 형태를 지닌다.<sup>46</sup> 다음 예를 보자.

(33) Une vieille dame a été assassinée. Le meurtrier n'a pas été retrouvé.

(34) Paul a coupé du pain et il a posé le couteau.

이 유형의 연상 대응에서 대응사는 선행사 술어의 논항 중 어떤 것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다. 위의 예 (33)에서 « le meurtrier »는 « assassiner »라는 행위의 주체이고 (34)의 « le couteau »는 « couper le pain »이라는 행위의 도구이다. 이와 관련해 Kleiber(2001:337)는 이 유형의 연상 대응에서 선행사와 대응사는 다른 유형의 연상 대응에 비해 대응사에 대한 선행사의 존재적 의존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위의 (33)에서 « assassinat »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이와 연관된 « meurtrier », « victime », 혹은 « instrument du crime »등이 존재한다. 또한 (34)에서 « couper »라는 행위에는 반드시 활용되는 도구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다. 이처럼 대응사의 지시대상 없이 선행사의 지시대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47</sup>

선행사와 대응사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명제로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명제의 구조를 살펴 보면, 분의적 연상 대응과 장소적 연상 대응은 모두 « x V y »의 도식

---

<sup>45</sup> 술어 명사구는 다른 말로 절차적 명사구라고도 하며 어떠한 사건의 명사적 표현을 의미한다.

<sup>46</sup> « L'antécédent des méronymiques, locatives, et fonctionnelles est généralement un SN, alors que celui des actanciennes est un SV ou un SN prédicatif ou processuel, c'est-à-dire un SN comportant un nom d'événement (...) »

<sup>47</sup> « L'existence d'une des ses occurrences dépend de celle d'autres occurrences. on ne peut avoir une occurrence d'*assassiner* s'il n'y pas de personne qui assassine et de personne qui est assassinée. Les autres anaphores associatives ne connaissent pas une telle orientation dépendancielle. »

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9b)의 « anse »와 « tasse », (31)의 « frigo »와 « cuisine »의 관계를 명제로 표현해 보면, 이는 각각 « anse est une partie de tasse », « frigo se trouve dans cuisine »와 같이 대용사 x와 선행사 y,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술어 V가 존재한다. 또한 이 연상 관계들은 « l'anse de tasse »와 같이 « N de N »의 형식으로 표기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행위자적 연상 대응에는 선행사인 명시적인 명사구 y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명제의 구조는 « x V »이다. 다시 말해, 이 유형의 예문 (33)에서처럼 « assassinat »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에 해당하는 대용사를 « meurtrier »로 상징할 때, « x a assassiné »와 같은 단순한 명제만으로 연상 대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35)의 선행사 « opération »이 술어 명사구에 해당하며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사건의 개체인 « opéré »와 « chirurgien »은 대용사이다.

(35) L'opération s'est bien passée. L'opéré et le chirurgien ont même blagué ensemble.

위에서 언급한 (35)의 예문을 활용해보자. 행위자적 연상 대응에 해당하는 이 예에서 선행사와 대용사를 « le chirurgien d'une opération »이나 « un chirurgien d'opération »과 같이 « N de N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져 수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4) 기능적 연상 대응 (les anaphores associatives fonctionnelle)

앞서 행위자적 연상 대응을 다루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Kleiber는 선행사와 대용사 간의 존재적 의존성의 정도나 둘 사이의 관계를 명제로 표현할 때 주어지는 구조적 특징의 차원에서 분의적, 장소적 관계가 행위자적 관계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었다. 행위자적 관계는 대용사에 대한 선행사의 존재적 의존성

이 높으며, 선행사로는 동사구나 술어 명사구가 사용된다.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기능적 연상 대응은 분의적, 장소적 연상 대응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 먼저 기능적 연상 대응의 예를 살펴보자.

(36) J'ai visité le bâtiment. La propriétaire semblait gentille.

(37) Ce livre est en français, mais l'auteur est tchèque.

Kleiber(2001:344-350)는, 기능적 연상 대응의 특징이 아닌 요소들을 세 단계에 걸쳐 배제해가며 그 개념을 정의하는데, 행위자적 연상 대응과의 구분은 바로 그의 논의의 첫 번째 단계이다. 위의 (36)과 (37)에서 선행사 « le bâtiment » « ce livre »는 각각의 대응사인 « la propriétaire »와 « l'auteur »와의 관계에서 대응사에 대한 선행사의 존재적 의존성이 낮은 편이다. 건물이 실재하기 위해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책이 실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저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예들은 « meurtrier »없이는 « assassinat »라는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자적 연상 대응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36)과 (37)의 선행사 y와 대응사 x는 « x V y »의 명제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도 행위자적 연상 대응과 다르다. 이처럼 기능적 연상 대응은 유형적으로 볼 때 행위자적 연상 대응보다는 분의적 연상 대응이나 장소적 연상 대응에 가깝다.

두 번째로, Kleiber는 분의적 연상 대응과 기능적 연상 대응을 장소적 연상 대응과 구분한다. 장소적 연상 대응에서 대응사는 전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한 요소인 반면, 분의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에서 대응사는 지시적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

(25a) Paul coupa un arbre. Le tronc était dur.

(36) J'ai visité le bâtiment. La propriétaire semblait gentille.

(31) Paul est entré dans la cuisine. Il a ouvert le frigo.

분의적 연상 대용의 경우인 (25a)의 예에서 줄기는 나무라는 존재가 전제된 경우에만 출현 가능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기능적 연상 대용의 경우인 (36)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용사 « 주인 »은 « 건물 »이 존재할 때에만 출현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31)의 « 냉장고 »는 « 주방 »의 존재와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분의적 연상 대용과 기능적 연상 대용에서 대용사는 선행사의 지시대상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기능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장소적 연상 대용과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Kleiber는 분의적 연상 대용과 기능적 연상 대용을 다음과 같은 논거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분의적 연상 대용의 대용사는 반드시 « partie de »라는 의미 요소를 갖는다. 이에 반해 기능적 연상 대용의 대용사는 총체 안에서 하나의 기능이나 특징적 역할을 갖는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 (38)과 (39)에서 대용사로 사용된 « habitants »과 « maire »는 « village »에 종속된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대용사는 모두 마을이라는 « 전체 »와 관련해 특징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38) Le village est vide le jour. Les habitants travaillent tous en ville.

(39) Nous sommes arrivés dans un village et nous avons demandé à voir le maire.

이처럼 기능적 연상 대용은 행위자적 연상 대용과는 달리 « x V y »의 구조를 갖는 연상 대용들 중 대용사가 선행사에 대해 지시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 partie de »라는 의미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을 나타낸다.



## 5) 집합적 연상 대용(les anaphores associatives collectives)

Kleiber(2001:350)에 의하면, 의미적으로 연상 대용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위의 분류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어휘 자체가 의미적으로 « 관계 »라는 요소를 지니는 경우로 전통적으로 관계 명사(noms relationnels)라 부르는 것이 이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예로는 친족 관계 명사(noms de parenté)가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Kleiber의 논의에 따르면, 연상 대용의 선행사와 대용사 사이에는 문맥이나 담화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 이상의 연결 고리가 존재해야 한다.<sup>48</sup> 예를 들어, 친족 관계 명사인 « mère »는 그 어휘 속에 이미 « x est mère de y »라는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가 등장한 문맥 속에서 x를 소개할 때, 두 요소 사이에는 의미적 연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다음 (40), (41)을 살펴보자.

(40) ?? J'ai rencontré une jeune fille très malheureuse. Les parents l'ont mise à la porte.

(41) ?? C'est l'histoire d'un père qui cherche des histoires au fils parce qu'il n'aime pas la copine. En définitive, toujours la même galère.

(40), (41)에서 문장의 선행사와 대용사는 의미적으로 상호 연상 관계에 놓여

---

<sup>48</sup> « Si l'on accepte le principal résultat de notre chapitre II, à savoir qu'entre l'entité 'antécédent' et l'entité nouvelle d'une anaphore associative il faut un lien qui n'est pas seulement discursif ou contextuel, alors les noms de parenté, parce que ce sont des noms relationnels, à savoir des noms qui, sémantiquement(ou intrinsèquement) déjà, impliquent une relation, se présentent comme des candidats privilégiés pour être, en anaphore associative, le nom de l'expression anaphorique. »

<sup>49</sup> « Un nom comme *mère*, par exemple, parce qu'il met en jeu la relation prédicative *x est mère de y*, devrait pouvoir fonctionner comme anaphore associative pour introduire *x* dans un contexte où *y* se trouve déjà disponible. » (Kleiber, 2001:352)

있는 친족 관계 명사들이므로 연상 대용 관계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예들이 보여주듯이 실제로 친족 관계 명사의 경우 3.1.2.에서 Kleiber가 제시한 연상 대용의 4가지 조건에 따라 정관사와 함께 대용사로 사용될 때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위 예들은 수용성이 낮은 문장들로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대용사구에 정관사 대신에 소유 한정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42) J'ai rencontré une jeune fille très malheureuse. Ses parents l'ont mise à la porte.

(43) C'est l'histoire d'un père qui cherche des histoires à son fils parce qu'il n'aime pas sa copine. En définitive, toujours la même galère.

그런데 다음 (44)는 대용사구에 소유 한정사가 아닌 정관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다.

(44) Un couple m'a rendu visite hier : le mari était insupportable.

똑같이 친족 관계 명사들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 (41)과 (44)의 문장 수용성에는 차이가 생기는가? Kleiber(2001:354)는 그 이유를 어휘들의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 상호성에서 찾는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두 어휘 사이에 의미적 상호성이 존재하는 경우 연상적 연쇄는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40)에서 « une jeune fille »와 « les parents »이라는 명사구들에는 « x est fille de y »과 « y sont parents de x »라는 의미 요소가 각각 내포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 전환될 수 있는 관계적 의미 요소를 공통으로 지닌 것이다. 이 때, 두 명사구는 연상 대용에서 선행사와 대용사가 지녀야 할 관계인 « 포함 » 관계에서 벗어나며,

이에 따라 연상 대응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sup>50</sup> 이 요소들이, 연상은 아니지만, 대응의 경우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위의 (42)의 예에서와 같이 대응사 « les parents »이 « ses parents » 형태로 바뀌면서 그 포함 관계가 명확히 주어져야 한다.

반면 위의 예 (44)처럼 친족 관계 어휘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수용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해 Kleiber(2001:355)는 선행사와 대응사에 해당하는 « couple »과 « mari »가 상호적 의미 관계 차원이 아니라, « member-collection »의 관계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음 (45)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45) **Quatre membre d'une même famille** ont été blessés par une explosion dans leur pavillon, hier, vers 13 heures. **Les parents** ont été grièvement brûlés.

선행사 « quatre membre d'une même famille »의 지시 대상은 네 명의 가족이라는 집단을 나타내고 있고, 대응사는 그 집합의 구성원인 « parents »을 지시하고 있다. 이처럼 « mari »나 « parents »은 각각의 선행사가 지시하는 집합의 일원(member-collection)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포함 관계라는 연상 대응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Kleiber가 제시한 분의적, 장소적, 행위자적, 기능적, 집합적 연상 대응이라는 다섯 가지 분류는 연상 대응을 단순히 환유 관계, 혹은

---

<sup>50</sup> Kleiber(2001:354) : « Une telle situation de réciprocité interdéfinitoire, qui ne se retrouve dans aucun cas d'anaphore associative, ni méronymique, ni locative, ni actancielle, ni collective, ne peut donner lieu à un enchaînement associatif, parce qu'elle implique l'absence d'englobement ou d'inclusion unilatérale entre les entités impliquées. Comme la relation *x est père de y* est réversible en *y est fils de x*, ni *x* ni *y* ne peut être dit englober ou inclure unilatéralement l'autre. »

분의 관계로만 조명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분의적 연상 대응과 비분의적 연상 대응을 구분하고, 비분의적인 연상 대응을 유형별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그의 분류는 단순히 의미적 연상 관계뿐 아니라, 문장의 구조적 차원에서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들과 차별성이 있다.

### 3.4. 연상 대응의 새로운 분류

#### 3.4.1. 기존의 분류가 지닌 한계

Kleiber의 분류는 현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그의 분류는 동시에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먼저 Kleiber의 분류는 Winston, Chaffin & Herrmann(1987:420-426)의 시각에 비해서는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다섯 가지의 경우만을 전제하고 있기에 연상 대응 현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Charolles(1990:130)이 제시한 아래 (20c)와 같은 예에 대하여, Kleiber(2001:238)는 이것을 연상 대응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sup>51</sup>

(20c) Il ne veut plus garder sa valise. Le cuir est fané.

그에 의하면 이 예는 아래 (20b)와 같은 전형적인 연상 대응의 경우와 비교하면 연상 대응 해석으로는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

<sup>51</sup> Kleiber(2001:238) : « L'exemple (57) de Charolles(1990:130) (...) reste pour nous un enchaînement qui n'est pas totalement satisfaisant. »

(20b) Il s'abrita sous un vieux tilleul. Le tronc était tout craquelé.

그러나 (20c)의 선행사와 대용사는 3.1.2.를 통해 제시한 Kleiber의 연상 대응의 4가지 속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 valise »라는 선행사를 매개로 새로운 지시 대상 « cuir »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관사를 사용함으로써 특정성 제약을 따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두 어휘의 관계는 전체와 그것을 구성하는 재질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습적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표현 자체의 이해 과정 역시 다른 연상 대응 현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leiber가 (20c)는 수용성이 떨어지고 (20b)는 연상 대응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두 예문을 구분할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Kleiber의 분류는 (20c)와 같은 유형의 예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두 번째로 앞서 3.3.2의 1)과 2)에서 언급했듯이, Kleiber는 « 주방-냉장고 »의 관계와 관련해 « 냉장고 »를 분의적 연상 대응의 일부로서 조명하고 나아가 이것을 전형성의 정도의 문제와 연관 지어 선택 부분어로 보는 학자들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해당 관계를 분의적 연상 대응에서 꺼내어 장소적 연상 대응의 영역에 배치하였다. 이후 Kleiber(2001:302-304)는 장소적 연상 대응에서 선행사와 대용사 사이에 존재하는 전형성의 정도에 따라 필수 장소적 연상 대응과 선택 장소적 연상 대응을 구분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류 기준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분의적 연상 대응에 있어 전형성의 정도에 따른 필수적인 부분과 선택적인 부분의 구분을 거부했던 그가 장소적 연상 대응과 관련해 전형성의 정도를 추론의 근거로 다시 사용한다는 사실은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Kleiber의 분류를 따르지만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 3.4.2. 새로운 분류 시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휘 전형적 이론에 기반한 연상 대응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선행사와 대응사 사이의 의미적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3.1.3.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상 대응의 선행사 A와 대응사 B가 존재할 때, 선행사가 그 내용물로 대응사와 그 이상의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점( $B \subseteq A$ )을 고려한다면, 논리적으로 이는  $B \subset A$ 와  $B=A$ 의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예로 살펴 보았던 표현들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전형적인 포함 관계에 해당한다. 반면 후자는 B와 A가 동일한 상위 개념어를 지닌 하위 개념어들일 때 성립한다. 다음 (46)과 (47)의 경우를 살펴보자.

(46) Le chirurgien est devant le bâtiment. L'opéré est sorti pour lui dire bonjour.

(47) Le pilot prépare son premier vol tandis que les passagers commencent à s'embarquer.

위의 예 (46)과 (47)에서 사용된 선행사와 대응사의 관계는  $B=A$ 인 경우로, 대응사가 선행사에 일방적으로 포함되는 요소가 아니라, 두 요소가 동등한 어휘장 내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Winston, Chaffin & Herrmann의 분의 관계와 Kleiber의 연상 대응 분류는 이러한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위 예들은 Kleiber가 제시한 연상 대응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의미의 이해나 문장 수용성의 차원에서도 무리 없이 연상 대응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기존의 이론이 포괄하지 못하는 연상 대응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연상 대응에 대한 기존의 분류를 토대로 어휘들 간의 의미적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 새로운 분류를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B \subset A$ 와  $B=A$ 의 경우를 구분하고, 이를 각각 포함 관계 (relation inclusive)와 등가 관계(relation équivalente)로 명명할 것이다. 이어서 포함 관계 안에서 Kleiber의 5가지 분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예외적 경우와 경계가 모호하다고 여겨졌던 예들을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상 대응 연구가 다루지 않았던 등가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대용사의 지시 대상과 선행사의 지시 대상이 포함 관계(relation inclusive,  $B \subset A$ )인 경우, 대용사의 지시 대상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물질적 요소인지, 지시 대상의 개념과 같은 추상적인 일부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실질적 포함 관계와 개념적 포함 관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실질적 포함 관계는 관계의 속성에 따라 전체-속성 관계, 분의 관계, 공간적 포함 관계로 나뉠 수 있으며, 개념적 포함 관계에는 단계적 포함 관계, 기능적 포함 관계, 행위자적 포함 관계가 존재한다. 다음은 실질적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예들로 (48a-b)에서 대용사 « jaune »와 « laine »는 각각 눈으로 확인 가능한 색과 촉각으로 인지하는 옷의 재질을 가리킨다.

(48) a. Je n'aime pas le canari. Je déteste le jaune.

b. Elle touche la robe. La laine était douce.

반면 아래 (49a-b)에서 대용사의 지시 대상은, 오감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물질적 요소들이 아니라, 어휘가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을 개념적 포함 관계라 명명한다. (49a-b)의 대용사 « essayage »와 « dessert »는 물리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각각 옷을 사는 과정에서 입어보는 절차와, 일련의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식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후식의 개념 자체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49) a. Paul ne veut plus acheter des vêtements avec sa femme. Il n'aime pas l'essayage.

b. Ce repas n'est pas satisfaisant. Je n'aime que le dessert.

실질적 포함 관계에서 전체-속성의 관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전체가 되는 물질과 그것을 구성하는 속성 사이의 관계를 연상 대응적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한 Kleiber의 견해가 위의 (48)과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Kleiber(2001:234)는 프랑스어의 연상 대응 현상이 영어와는 차이점을 지님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어에서는 전체의 크기, 무게, 색 등을 나타내는 특징적 속성이 연상 대응의 대응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응사구에 소유 한정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Kleiber(2001:229)가 인용한 Azoulay(1978)의 예문이다.

(50) \*Pierre a exposé son dernier tableau. La beauté est fascinante.

Kleiber에 의하면, 위의 예에서 « beauté »가 « tableau »와 연관된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 한정사가 사용되어 « sa beauté »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3.4.1.을 통해 아래 (20c)의 경우를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특징적 속성에 소유 한정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c) Il ne veut plus garder sa valise. Le cuir est fané.

(50)의 « beauté »와 (20c)의 « cuir »는 모두 선행사의 지시 대상이 지닌 속성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50)은 문장의 문법성에 문제가 있는 반면, (20c)에서 « cuir »와 « valise »는 연상 대응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 우리가 실제로 이 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 « le cuir »라는 대응사구 대신에 « son cuir »가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48)의 예들과 다음 (51)도 마찬가지로이다.



(51) Ils sont arrivés sur une plage. Le sable était brûlant.

(51)에서 속성을 나타내는 « sable »는 앞 문장의 « plage »를 선행사로 하는 연상 대응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개념적 포함 관계에서 우리가 새로이 설정한 단계적 포함 관계란 선행사가 행위나 절차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대응사가 행위나 절차를 구성하는 여러 단계 중 하나로 상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앞서 제시된 예 (49a)의 경우, 선행사에 해당하는 « acheter des vêtements » 은 언제나 일련의 절차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행위를 « 상점으로 의 외출 », « 구경 », « 입어보기 », « 지불 » 등으로 단계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되는 행위나 절차의 총체가 선행사가 되고 단계 중 일부를 지칭하는 표현이 대응사가 되는 경우가 단계적 연상 대응이다. 다음 (52) 역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52) Paul est arrivé au colloque. Il a dû attendre quelques minutes pour l'inscription.

위의 예 (52)에서 선행사인 « colloque »에는 일반적으로 « 등록 », « 식전 행사 », « 강연 », « 토론 », « 다과 »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등가 관계란 선행사와 대응사가 지시적 관점에서 하나의 지시 영역에 속하는 두 구성요소로, 그 영역 안에서 두 요소들의 위상이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가 연상 대응 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존의 방식처럼, A를 매개로 B의 존재를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 대신에 A에서 B를 연상하기 전에, C라는 상위 개념어를 떠올리는 과정이 선행된다. 앞서 언급한 예 (46)을 다시 살펴보자.

(46) Le chirurgien est devant le bâtiment. L'opéré est sorti pour lui dire bonjour.

(46)에서, « chirurgien »과 « opéré »는 두 어휘 각각이 다른 한 쪽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어휘가 같은 어휘장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미적 연결고리를 갖고, 이에 연상 대응 해석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 이들은 공통적으로 « opération »이나 « hôpital »과 같은 상위 개념어를 가질 수 있는 하위 개념어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때, 선행사 A(chirurgien)와 공통의 상위 개념어 C(l'opération/ hôpital) 사이의 관계와, 대응사 B(opéré)와 C사이의 관계는 등가적이며 이러한 등가성은 담화 내에서 A와 B가 동등한 어휘적 지위를 갖고, 나아가 연상 대응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다음 (47)의 예 역시 « avion »이라는 상위 개념어를 상정할 때, « pilote »과 « passagers »가 갖는 위상이 동등한 등가적 연상 관계이다.

(47) Le pilote prépare son premier vol tandis que les passagers commencent à s'embarquer.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와 B의 관계			예문	Kleiber 분류
relation inclusive (B⊂A)	실질적 포함	전체-속성 관계	(48a) Je n'aime pas <u>le canari</u> . Je déteste <u>le jaune</u> . (20c) Il ne veut plus garder <u>sa valise</u> . <u>Le cuir</u> est fané.	해당 없음
		분의 관계	(29b) Il a touché <u>une tasse</u> . Et il a cassé <u>l'anse</u> .	Méronymique

연 상 대 용			공간적 포 함 관계	(31) Paul est entré dans <b>la cuisine</b> . Il a ouvert <b>le frigo</b> .	Locative Collective
		개념적 포함	단계적 포 함 관계	(49a) Paul ne veut plus <b>acheter des vêtements</b> avec sa femme. Il n'aime pas <b>l'essayage</b> .	Locative (?)
			기능적 포 함 관계	(36) J'ai visité <b>le bâtiment</b> . <b>La propriétaire</b> semblait gentille.	Fonctionnelle
			행위자적 포함 관계	(33) Une vieille dame a été <b>assassinée</b> . <b>Le meurtrier</b> n'a pas été retrouvé.	Actancielle
	relation équivalente (B=A)	동일한 어휘 계 층 내 존재	등가적 관 계 (A→C→B)	(46) <b>Le chirurgien</b> est devant le bâtiment. <b>L'opéré</b> est sorti pour lui dire bonjour.	Collective(?)

<표2> 연상 대용의 재분류

어휘 전형적 이론에 입각한 연상 대용 현상의 연구는 선행사와 대용사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며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두 요소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고,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연상 대용을 분의 관계에 관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Kleiber는 비분의적 연상 대용에도 집중하여 현상을 세분화하였다. 본 논문은 Kleiber를 비롯한 기존 연구들이 지닌

특성과 한계를 기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들이 지닌 작은 결함들을 보완하여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새로운 분류를 제시하였다.

## 4. 결론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해석적 의존성을 보이는 연상 대응은 표현의 특정성과 관련된 정관사의 문제, 지시의 문제, 의미 해석의 문제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상 대응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프랑스어에서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며 추후 더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1장의 서론을 시작으로, 2장에서는 대응 현상을 정의하고, 연관된 개념들과 대응의 하위 개념들을 살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연상 대응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3장에서는 프랑스어 연상 대응 현상을 주제로 한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현상을 정의한 뒤, 현상을 분석하는 시각으로 어휘 전형적 이론과 인지 담화적 접근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어휘 전형적 이론에 입각하여 연상 대응 연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Kleiber의 견해를 따라가며, 그가 제시한 분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Kleiber가 제시한 연상 대응의 4가지 조건과 연상 대응의 다양한 경우들을 살펴본 결과, 하나의 표현이 연상 대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 특정성 제약을 토대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지의 여부.
- 선행사와 대응사 어휘 간의 관계가 전형성에 기반하고 있는지의 여부.
- 문맥 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표현들인지의 여부.

이 요소들을 고려할 때, Kleiber가 제시한 분류는 연상 대응에 대한 광의의 정의에 비해 현상을 축소하여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가능한 예외적 경우들마저도

배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기존의 Kleiber 분류를 토대로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한 의미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연상 대응의 분류가 현상을 분석하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 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미적 분류 기준만이 아닌 통사적 분류 기준이 함께 제시되었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는 추후 지속될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을 포함한 연상 대응에 관한 의미적 혹은 화용적 차원의 연구는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현상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어휘나 문장, 나아가 담화 차원의 의미 해석을 돕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Bibliographie

- 이성범(1999), 『언어와 의미: 현대의미론의 이해』, 서울: 태학사.
-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 하』, 서울: 국학자료원.
- 한용환(2001), 『소설학 사전』, 서울: 문예출판사.
- 홍종화, (1994), '대용어와 연결사, 조응 및 연계', 『언어와 언어학』 19, 153-180.
- Apothéloz D. (1995), *Rôle et fonctionnement de l'anaphore dans la dynamique textuelle*, Genève : Droz.
- Bouyer E. & Coulon D. (1994), « Détection des entités et des procès mis en relation dans les anaphores associatives »,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321-343.
- Charolles M. (1994), « Anaphore associative, stéréotype et discours »,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67-92.
- Choi-Jonin I. (1994), « L'anaphore associative et le trait sémantique animé »,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251-270.
- Corblin F. (1985), « Remarques sur la notion d'anaphore »,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vol. 15, n° 1, 173-195.



- Guillaume G. (1919), *Le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 Paris : Hachette.
- Kleiber G. (1991), « Anaphore-deixis : où en sommes-nous ? », *L'information grammaticale*, n°51, 3-18.
- Kleiber G. (1994), « Anaphore associative, antécédent et définitude »,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153-173.
- Kleiber G. (2001), *L'anaphore associative*, Paris : PUF.
- Kleiber G. (2003), « Un 'puzzle' référentiel en anaphore associative. » Fonseca, FI & Brito, AM (éds), *Lingua portuguesa: estruturas, usos e contrastes*, Porto, Centro Linguística da Universidade do Porto, 97-110.
- Kleiber G., Schnedecker C. & Ujma L. (1994), « L'anaphore associative, d'une conception l'autre »,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5-64.
- Maillard M. (1972), « Anaphores et cataphores », *Communications*, n°19, 93-104.
- Maingueneau D. (1994), *Syntaxe du français*, Paris : Hachette.
- Martínez G.P. & Pardo M.A.O. (2008) « L'anaphore associative: contiguïté métonymique », *IBÉRICA*, 15, 135-150.
- Milner J-C. (1982), *Ordres et raisons de langue*, Paris : Seuil.
- Morier H. (1975), *Dictionnaire de poétique et de rhétorique*, Paris : PUF.

- Panissod C. (1999), « Quantification et anaphore : entité anaphorique complexe (méronymique, processuelle, situationnelle) », Conférence TALN 1999.
- Reichler-Béguelin M-J. (1988), « Anaphore, cataphore et mémoire discursive », *Pratiques*, n° 57, 15-43.
- Reichler-Béguelin M-J. (1989), « Anaphores, connecteurs, et processus inférentiels », *Modèles du discours. Recherches actuelles en Suisse romande*, 303-337.
- Riegel M. (1994), « Article défini, anaphore intra-phrastique et relations partie-tout »,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233-250.
- Saussure F. (1975),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 Payot.
- Tesnière L. (1976),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 Klincksieck.
- Webber B.L. (1988), « Tense as discourse anaphor »,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 14, Issue 2, 61-73.
- Winston M., Chaffin R. & Herrmann D. (1987), « A taxonomy of part-whole relations », *Cognitive Science* 11, 417-444.
- Zribi-Hertz A. (1996), *L'anaphore et les pronoms : une introduction à la syntaxe générative*, Villeneuve d'Ascq :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 Résumé »

# Étude sur le phénomène d'anaphore associative en français

**KIM SeoYeoung**

Maîtrise en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anaphore associative est un phénomène linguistique qui est étroitement lié à la syntaxe et à la sémantique. Elle est également considérée comme un sujet important dans plusieurs domaines comprenant lexicographie, lexicologie, pragmatique, psycholinguistique, etc.

Cette étude a pour but de clarifier la caractéristique du phénomène d'anaphore associative en français et de classer les différents types d'anaphores associatives selon des critères sémantiques.

Dans un premier temps, nous traitons la base théorique du phénomène d'anaphore, avec tout d'abord, la définition de l'anaphore et sa distinction des phénomènes similaires, tels que l'endopore, l'exopore, la cataphore et le

déixis, afin de comprendre comment ils se différencient. Puis, nous étudions les différents types d'anaphore pour trouver les traits définitifs de notre sujet principal, c'est-à-dire, l'anaphore associative.

Ensuite, nous abordons l'histoire des recherches sur l'anaphore associative commençant par G.Guillaume(1919), en vue de mieux comprendre la conception et les deux perspectives différentes sur le phénomène : la thèse lexico-stéréotypique et l'approche cognitivo-discursive. Enfin, dans le cadre du point de vue lexico-stéréotypique nous analysons la classification de l'anaphore associative proposée par G.Kleiber (2001). Il a proposé 5 sous-catégories : méronymique, locative, fonctionnelle, actancielle, et collective. Cependant, cette classification préexistante a quelques petits défauts. Par exemple, elle ne peut pas inclure tous les cas d'anaphore associative et il y a toujours des exceptions. C'est pour cela nous proposons une nouvelle classification de 7 sous-catégories : attributive, méronymique, locative, processuelle, fonctionnelle, actancielle et équivalente.

Pour conclure, nous en déduisons que l'anaphore associative est un sujet propre aux discussions, parce qu'elle est intimement liée à plusieurs branches de la linguistique. Nous avons mis au point la conception générale et la classification du phénomène en nous fondant sur le critère sémantique.

Nous espérons que cette étude apportera une contribution aux études ultérieures sur l'anaphore associative et les sujets enchaînés.

## **MOT-CLÉ**

anaphore

anaphore associative

la thèse lexico-stéréotypique

méronymie

Kleiber

la classification de l'anaphore associative